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수월 스님(1)

수월, 이 승냥그릇을 똑바로 일러 보소

만공, (승냥그릇을 밖으로 집어 던진다)

수월, 참으로 잘 하였고

어느 날,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과 한담을 나누다가, 승냥 그릇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 승냥그릇을 승냥그릇이라 하지도 말고, 승냥그릇 아니라 하지도 말고, 한 마디 똑바로 일러 보소."

만공 스님이 문득, 승냥그릇을 들어 밖으로 집어던지고 묵묵히 앉아 있으니, 수월 스님이 "참으로 잘 하였고" 하고 찬탄하였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수월(水月, 1855~1928) 스님은 일찍 부모를 여리고 머슴살이로 자랐기에, 글을 읽지 못했다. 29세 되던 어느 날, 탁발승을 만나 밤새워 이야기를 듣고 인근 서산군 천장암으로 출가하였다.

그때 천장암에는 경허(鏡虛) 스님의 형인 태허(太虛) 스님이 주지로 있었으며, 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하고 있었다. 경허 스님은 간혹 어머니와 형이 있는 천장암을 오가고 있었다.

스승 경허 스님은 수월 행자에게 천수다라니를 외우도록 하였다. 수월 스님은 33세 되던 해 겨울 동안 천수다라니 정진으로 불망념지(不忘念智)를 얻어 심지(心地)를 깨닫고는 경허 선사의 법을 이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얻고 집어 잊어졌다고 한다.

뒷날 만공(滿空) 스님이 입산하고 혜월(惠月) 스님이 사미로 들어왔는데, 천장암에서 이렇게 만난 '경허의 세 달'은 "수월이 북쪽, 혜월이 남쪽, 만공이 가운데에 남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경허 선사의 수제자인 수월 스님은 위의 법문담을 나는 뒤에 자

취를 감추었는데, 그 뒤 만공 스님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위의 공안에서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던진 질문은 "진실에 접촉해도 틀리고, 배반해도 잘못된 것(背觸公非)"이 되고 마는 진퇴양난의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승냥 그릇이라고 하는 '이름과 모양(名相)'이란 출가미에 걸려들어 이리저리러공 말하는 순간, '홍명이를 쫓는 개(韓鷹逐塊)'가 되고 만다. 언어와 생각을 떠나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선(禪)은 철저히 상대적 개념의 세계를 떠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만공 스님 역시 이론이나 개념을 초월해, 자기와 승냥그릇이란 주·객을 모두 잊은 채 본래무일물

(本來無一物)의 경지를 묵묵히 말없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같은 사자굴에 사는 사자 새끼임을 증명하였다. 이 공안은 물병을 발로 찬 선문담으로 대위산의 주인이 된 위산영우 선사의 법문담과 유사하다. 위산 스님은 처음 백장 스님 문하에서 전좌(典座)를 맡고 있었다. 백장은 대위산의 주인을 선출하려고 물병을 들고 땅위에 놓으면서 물었다.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무어라고 부르겠느냐?" 수좌가 말했다. "장작이라 불러서는 안 되지요." 백장이 이번에는 위산에게 물었다. 위산은 물병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다. 백장은 웃으면서 "수좌가 촌놈에게 졌다"고 말하며 위산을 개산조로 삼았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취를 감추었는데, 그 뒤 만공 스님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였다. 위의 공안에서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던진 질문은 "진실에 접촉해도 틀리고, 배반해도 잘못된 것(背觸公非)"이 되고 마는 진퇴양난의 공격이 아닐 수 없다. 승냥 그릇이라고 하는 '이름과 모양(名相)'이란 출가미에 걸려들어 이리저리러공 말하는 순간, '홍명이를 쫓는 개(韓鷹逐塊)'가 되고 만다. 언어와 생각을 떠나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배척공비' 진퇴양난 공격에 묵묵히 '본래무일물' 경지 보여

염불선 실참·교리 공부로 '선교쌍수'

"은스님,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 부터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의 삶 속에서)

1982년 백장암에서 자훈 박병섭 거사가 청화(1923~2003) 스님과 나는 문답이다. 반세기동안 좌좌불와와 하루 한 끼 식사 등 투철한 수행과 무소유를 실천한 청화 스님은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의 고통을 어루만진 큰스님으로 기억되고 있다.

염불선을 중심으로 모든 수행을 회통(會通)한 원통(圓通)불교의 주창자였던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그의 수행가풍을 널리 퍼기 위해 개설된 '수미산' 홈페이지를 비롯해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 동지를 쓴 '금강' 카페에는 큰스님을 생전에 뵈지 못한 많은 불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법문을 접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특히 4800여명에 이르는 '금강' 카페(cafe.daum.net/vajra) 회원들은 카페지기이자 지도법사인 경주 배광식(58) 국제포교사의 지도아래 금강정진회와 금강강독회를 만들어 매일 철야 염불선 정진과 법문 공부를 이어 오고 있다.

8월 14일,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어느새 30여 금강강독회(회장 배원봉) 회원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제주도 등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인터넷 카페로서는 참여율이 높았다. "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할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

회원들은 삼귀의, 반야심경, 입정(入定)에 이어 '보리방편론(菩提方便門)'을 봉독한다. 청화 스님의 출·재가 제자들이 법회 때마다 외우고 틈틈이 사경하는 보리방편론

청화 스님 수행 가풍 이어가는 금강강독회



금강강독회 회원들이 우리는선우 법당에 모여 공부하는 모습(위). 배광식 법사(아래)



한편서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묘결(妙訣)이라 한다.

이 법문을 깊이 읽어서 뜻을 투철히 한 후에, '보리방편론'의 제1절 '아미타불(阿彌陀佛)' 부분을 베껴서 벽면에 붙여놓고, 앉아서 보고 생각하되 관(觀)의 일상삼매(一行三昧: 일체를 한 부처로 보는 삼매로 부처 성품을 보고, 염(念)의 일행삼매(一行三昧: 일상삼매가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삼매로 도를 깨닫는 수행법이다.

청화 스님은 생전에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던 밖에 계신 부처님께서 가피를 준다고 생각하면 방편염불이며,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우주생명 자체가신 부처를 안 때니고 부처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염불선이다"고 하였다.

때문에 마음을 생멸(生滅)이 없는 불성 자리에 바탕 하여, 보리방편론을 읽고 또 읽어 깊이 염(念)하여 우주생명의 대명사인 아미타 부처님으로 통일해 가는 것이 이 수

행법의 요체이다. 회원들은 이어, 청화 스님의 범어집인 <원통불법의 요체>(성문각) 제2장 '교상(敎相)과 수행론의 변천' 부분을 돌아가며 읽는다. 중국불교의 교상과 관심(觀心), 법상종의 삼시교(三時敎), 천태5교관 등 상당히 전문적인 교리를 찬찬히 사유하며 읽는다.

28쪽 분량의 적지 않은 분량을 모두 읽고 난 후, 고문인 배광식 법사가 법문을 통해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평소 아미타불 정근을 하려도 쉬지 않는 염불선 수행자들이지만, 교리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이 신선하다. 보통 수행 위주로 정진하는 불자들은 경전과 교리를 무시하기 쉬운데, 금강 카페 회원들은 실참과 교화를 병행하는 선교쌍수(禪教雙修)를 강조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 자유로운 시간에는 저마다 한 달 동안 수행하며 느낀 점들을 상호 공유한다. 한 수행자가 "처음 염불할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정진하는 하면 할수록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언을 구하자, 각자의 경험을 말하며 용기를 준다.

"수행을 통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도 더욱 많아지죠. 더 큰 용맹심을 내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면 환희심이 나서 더욱 잘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원하는 게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바라는 바가 없는 무원(無願) 기도가 되어야 정진이 잘 됩니다."

다른 회원이 딸이 8학9일 석남사 수행을 통해 부처 성장해서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배원봉 회장이 일상 속의 공부 자세를 강조한다.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늘 '부처님 마음(佛心)'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처음 법회에 참석한 한 보살은 염불, 주력, 사경, 참선 등 여러 수행법을 해 보아도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배광식 법사가 "수행방법은 평생 1가지로 꾸준히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일단 '보리방편론'을 읽고 외우며 사경(寫經)을 해보라"고 권한다.

3시간에 걸친 진지한 법회는 발원문 봉독과 사홍서원을 끝으로 회향되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며 스승의 유지를 잇고 있는 금강 카페 회원들을 보면서, 생전에 친견했던 청화 스님의 밝고 청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며 부처를 깨달아가는 공부가 바로 염불선"임을 자각시킨 스님의 원력이 온오프라인의 인도랑을 통해 꽃피울 날이 멀지 않으리라 기대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인내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센터 김희경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1512-2736
http://www.avatacenter.co.kr
E-mail: heegyun@avastar21.com

수행개시판

- **10일 집중수행**-천안 호두마을은 8월 31일 ~9월 9일, 9월 21~30일 성오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9월 14~16일에 평등 스님이 사미타 및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041)567-2841
- **금강경 법회 및 철야정진**-김천 인척사는 9월 9일(매일 둘째 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 및 참선법회를 연다. 9월 22일(매일 넷째 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054)431-1192
- **위빠사나 초보교육**-대전 보리수선원은 9월 3~14일 제 10차 위빠사나 초보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9월 21~26일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한가위 특색연휴 수행을 진행한다. (02)617-2871
- **일요 염불정진**-안남염불정진회는 9월 2일 (매일 첫째 일) 오전 10시 성남 정토사에서 김말환 법사의 지도로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031)723-9797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차

茶心마루 소나무 정반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잔의 차처럼... 한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정반

일반 원목 정반과는 다릅니다!

- 자연 그대로의 무늬를 소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정반 -

소나무원목 다기정반은 소나무 통반을 조각하여 만들어진 수공예 제품으로, 소나무의 온온한 무늬결과 소나무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기상이나 장식으로 사용하시면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기있는 풍수로 닦아주시기만 하면 항상 소나무의 무늬결과 살아납니다.

대(대): 40cm X 27cm 사이즈 모습입니다. 위의 대기는 장식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석맛이 30% 할인!!!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3중 1세트 7만원

→ 특별 할인가 5만원

* 규격 (Size)
소: 39*22 (cm)
중: 44*24 (cm)
대: 49*27 (cm)

소나무 정반 한 세트 (3중) 도매가 문의: 080-999-1080

1 세트 7만원 → 5만원 (배송비 무료)
10세트 이상 구매시 도매가 공급

주문처 080-999-1080
농협: 177483-51-071977 (예금주: 천소현)

元 · 氣 · 回 · 復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치자격으로 불차과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나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액을 조금만 먹어도 우유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道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하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 (본식 51160-150)

식물은 본후에는 上藥 120 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 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 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산에 비유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